

렛츠런파크 서울 15일 제9경주 '명마들의 불꽃 경쟁'

파랑주의보·실버울프...서울 최강마 가린다

우승상금 1억5000만원 걸린 대상경주 단거리 강한 스프린터형 경주마 총출격

국·외산 최강 경주마들이 10월15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로 총출격한다. '패도난마', '당대제일' 등 걸출한 명마들을 배출해 온 문화일보배(제9경주, 1200m, 3세이상, 혼OPEN) 대상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우승상금 1억5000만원을 놓고 불꽃 튀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10월15일 1200m로 치러지는 렛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에는 서울 대표마들이 총출격한다. 단거리에 감점을 보이는 파랑주의보(왼쪽)와 실버울프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파랑주의보(수, 7세, 미국, R107, 김순근 조교사, 승률 17.8%, 복승률 33.3%)

초반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전형적인 선행마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 6월 단거리 대표 경주로 꼽히는 SBS스포츠 스프린트(GⅢ)에서 코차(선착마)의 코끝과 후착마의 코끝 사이의 거리, 약 0.1~21cm 정도의 간격)도 아쉽게도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다. 7세로 비교적 고령임에도 총 45번의 출전 전력 중 1000~1400m 단거리에 무려 39번 출전하며 전형적인 스프린터형 경주마로 성장해왔다. 꾸준히 단거리 경주 경험을 쌓으며, 특유의 순발력과 탄력도 갖췄다. 최근 1등급경주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컨디션 또한 상승세다.

표 마필로 부상했다. 비록 SBS스포츠 스프린트(GⅢ) 대상경주에서는 하위권에 그쳤으나, 최근 1등급 경주에서 준우승을 달성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마필을 잘 관리하는 지용훈 조교사 소속 경주마라, 기대를 걸어볼지하다. 다만, 금년도에 기복이 있어 이 점은 유의해야 된다.

●실버울프(암, 5세, 호주, R106, 송문길 조교사, 승률 41.2%, 복승률 58.8%)

폭섬배와 KNN배 대상경주에서 모두 우승하며 현재 62점으로 퀸스투어 시리즈(5세 이하, 최고 암말 선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대주다. 지난 9월 한국경마 최초의 국제경주인 코리아스프린트(GⅠ)에서 '그레이스풀림', '더트루소어엘스' 등 우수 외국 경주마와 맞서 순위상금을 거머쥐었다. 당시 늦은 추입력 발휘가 아쉬웠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 설욕을 기대해본다.

●최강자(거, 4세, 미국, R105, 전승규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50.0%)

올해 4월 서울 신규 조교사로 데뷔한 전승규 조교사가 관리하는 마필로, 7월 싱가포르 크란지 경마장으로 원정 경주를 다녀오며 해외 경주 경험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속으로 5번이나 우승을 거머쥐며 능력을 입증했다. 4세로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1200m에 총 7번 출전해 5번이나 우승했을 만큼 거리 경쟁력도 갖췄다.

●천지가(거, 4세, 미국, R83, 박천서 조교사, 승률 44.4%, 복승률 44.4%)

지난해 8월 외4등급에서 불과 1년이 남짓한

기간 만에 초스피드로 외1등급으로 승급한 저력의 경주마다. 경주 경험이 풍부하진 않으나, 1200m 경주에 총 6번 출전해 3번이나 우승했을 만큼 높은 승률과 능력을 자랑한다.

●올웨이즈위너(거, 5세, 한국, R101, 심승태 조교사, 승률 25.9%, 복승률 44.4%)

올해 1월과 3월에 개최된 1200m 단거리 대상경주 세계일보배와 서울마주협회장배(GⅢ)를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하며 최강 스프린터로 떠올랐다. 하지만 SBS스포츠 스프린트(GⅢ)에서 10위를 하는 등 그 후 경주에서 연속 하위권을 기록하며 해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가야시대 시간여행 경마장으로 오세요

렛츠런파크 부경 10월 마철축제 개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가야시대로 시간여행 떠나요." 2017년 금관가야 마철(馬鐵)축제가 10월21·22일과 28·29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가야문명을 대표하는 철기문화와 기마민족의 전통을 체험과 전시, 놀이시설 등으로 즐길 수 있다. 한국마사회와 김해시, 가야문화축제제정위원회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역사축제로 탈바꿈시켰다.

가야 철기 문화관에서는 가야의 철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불 피우기, 풀무질, 다듬질 등의 체험 과정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야철기 공방을 운영한다. 흙과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 만들어 볼 수 있는 분청도자기 홍보관도 연다. 또 고고학자처럼 가야유물을 발굴해 보거나, 가야시대 왕들의 무덤을 재현해 가야의 순장 제도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금관가야 무사 복장이나 가야 의복을 입고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가야의 전통문양을 확인하고 삼국유사 가락국기목판과 토기 문양 등을 찍어볼 수 있는 가야본체화도 선보인다.

말과 관련된 행사도 풍성하다. 1986년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제주마와 체고 1m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니호스 등 세계 희귀 말들을 만날 수 있다. 말산업 직업체험관에서는 경마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수와 경주마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말수의사와 말관리사, 경주용 말굽을 만드는 장인인 장제사 등 말산업 필수 직업을 해설사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말을 주제로 한 페이퍼 토이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말 테마파크에서는 어린이 식물원 토마의 정원, 빛 테마파크 일루미아, 사계절 썰매동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축구공만큼 말을 사랑한 퍼거슨, '경주마 소송'까지?

(전 현우 감독)

유럽의 마주, 유명인사 누가 있다

마이클 오언 소유 경주마 28전 11승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기수 활동

마주들 중에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적지 않다. 유럽의 경우 마주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부터 축구선수 웨인 루니까지 각계각층 유명인들이 마주로 활동한다.

●기수로도 활동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젊은 시절 아마추어 기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영국 최고의 경마장인 애스콧(Ascot) 경마장과 목장을 소유하고 있어 수십 두의 씨암말로 경주마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십 두의 경주마를 보유하고 있다. 경마장 관리인과 목장관리인, 경주마 관리인을 따로 지정해 말과 시설을 관리한다. 여왕의 목장과 경주마관리인이 된다는 것은 경마전문가에게 최고의 명예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경마전문가들이 여왕의 대리인이 되기를 원한다.

●경주마 소송까지 벌인 알렉스 퍼거슨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은 아일랜드의 유명한 목장주인 존 매그니어로부터 경주마 1두를 선물로 받으면서 마주 활동을 시작했다. 락오브지브롤터(Rock of Gibraltar)라는 경주마였는데, 문제는 100% 지분이 아니라 50%의 지분만을 선물로 받았다. 좋은 혈통과 체격을 갖고 태어나 2002년 유럽 최고의 3세마와 유럽 연도대표마에도 선정됐다. 경주마 은퇴 후 씨수말로 약 3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퍼거슨이 씨수말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50%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했다. 결국 상호 합의로 소송 취하했고, 이후에도 퍼거슨은 몇 두의 말을 더 구입해 마주로 활동했다.

●프랑스 최고의 마주, 사넬 소유주 베르트하이머 가문

사넬(Channel) 브랜드의 소유주로 알려진 베르트하이머 가문은 프랑스에서 마주 겸 생산자로도 유명하다. 총 재산이 2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베르트하이머 형제들은 매년 프랑스 최고 마주 및 생산자 랭킹 5위 안에 들 정도로 경주마 생산과 마주 활동에 많은 돈을 투자하며 정성을 들이고 있다. 2008·2009·2010년 3년 연속으로 미국 브리더스컵 마일(Mile, G1) 경주에서 우승하며 역대 최고의 암말로 평가받고 있는 골드코바(Goldikova)가 베르트하이머 가문이 생산한 훈련시키고 경주에 출전시킨 대표적인 말이다. 2013년 프랑스더비 우승마인 인텔로(Intello) 등의 소유주로도 유명하다.

●축구선수의 말사랑, 마이클 오언과 웨인 루니

영국 축구선수 출신 마이클 오언은 브라운팬서(Brown Panther)라는 뛰어난 장거리마의 마주로 유명했다. 독일 혈통 경주마로 총 28전 11승, 2위 5회를 기록하고 20억원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이었다. 이 경주마는 불행하게도 2015년 Irish St.Leger(G1)경주 도중 다친 탓에 부상이 심해져 안락사됐다. 웨인 루니도 3두의 경주마를 구매했으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말은 아직 없다. 특이한 점은 루니가 경주마를 구입할 때 단독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당시 팀



유럽의 마주들 중에는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유명인사들이 꽤 있다.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위)과 에버턴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웨인 루니도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였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동료였던 조니 에반스, 마이클 캐릭, 존 오셔 등과 함께 공동으로 구매하고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운 기자

이찬호 기수, 200승 달성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찬호 기수(만 25세·사진)가 10월1일 서울 제11경주에서 200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200승 달성을 함께 한 마필은 데뷔 때부터 함께 한 '최강실러(6세, 거, 미국, R116, 지용훈 조교사)'였다. 다소 불리한 게이트번호인 가장 바깥쪽에 배치되었지만 초반부터 빠르게 선두로 치고 나와 끝까지 속도를 유지하는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경주기록은 1분10초4. 최강실러 개별기록은 물론 해당 거리 1200m 최고 기록이다. 이찬호 기수는 2013년 최우수 신인 기수로 선정, 2014년 당시 최단기간 40승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승률 13.4%로 우수한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용운 기자

레알도 꺾은 베티스 vs 무패 행진 발렌시아

축구토토 스페셜 43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10월 15일 밤과 16일 새벽에 벌어지는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3경기를 대상으로 축구토토 스페셜 43회차를 발매한다.

스페셜 43회차에서는 지로나-비야레알(1경기), 말라가-레가네스(2경기), 베티스-발렌시아(3경기)전이 대상 경기다. 이번 회차에는 시즌 초반 화려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지키는 베티스와 발렌시아의 맞대결이 축구팬들의 관심을 끈다.

홈팀 레알 베티스는 시즌 초반 4승 1무 2패로 6위에 오르며 순항 중이다.

2013~2014시즌 최하위로 강등의 수모를 겪었던 베티스는 승적 이후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계속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레온, 사나브리아, 호아킨 등 공격진의 고른 활약이 고무적이다. 최근 레알마드리드에 1-0 승리를 거뒀고, 최근 4경기에서 경기당

2.7골을 퍼부으며 3승 1무를 기록하는 등 더욱 매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승 3무로 무패행진을 달리는 상대팀 발렌시아의 최근 기세도 만만치 않다. 메시에 이어 득점 순위 2위에 오른 시모네 자자가 팀의 공격을 이끌며 경기당 평균 2.1골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록이나 팀 전력에서는 발렌시아가 우세하다는 평가지만, 상대전적에서는 베티스가 앞선다.

최근 두 시즌 동안 맞붙은 4경기에서 베티스가 2승 2무로 발렌시아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점에서 조심스런 결과 예측이 필요하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아직 시즌초반이기 때문에 최근 전력이나 팀 분위기, 상대전적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축구토토 스페셜 43회차는 10월 15일 오후 9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와 공식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L 새 시즌, 농구토토와 함께 하세요"

농구토토 스페셜 23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10월 15일에 펼쳐지는 국내 남자프로농구 KBL 3경기를 대상으로 2017~18시즌 첫 번째 농구토토 스페셜 23회차 게임을 발행한다. 국내프로농구 KBL이나 국제대회 등을 대상으로 발매하는 농구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2경기(더블게임) 및 3경기(트리플게임)의 최종 득점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대는 69점 이하, 70~79점, 80~89점, 90~99점, 100~109점, 110점 이상 등 총 6개 항목이다. 최소 1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 시즌 첫 스페셜 게임인 23회차의 대상 경기는 15일 오후 3시에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자랜드-안양KGC(1경기)전을 비롯해, 같은 시간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원주동부-KCC(2경기),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서울SK-오리온스(3경기)전이 선정됐다. 발매시

작은 13일 오전 9시30분부터다. 첫 번째 경기 시작 10분 전인 15일 오후 2시5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케이토토는 "새 시즌 프로농구와 함께 농구토토 스페셜이 농구팬 결을 찾아간다. 바뀐 전력과 새로운 선수 등을 정확히 분석한다면, 적중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구토토 스페셜 게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와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투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국내 프로스포츠 총 7경기 대상 토트언더오버 38회차 게임 발매

(9)케이토토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트언더오버'가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38회차 발매를 개시한다.

38회차는 10월 15일 열리는 남자프로배구 1경기과 K리그챌린지 2경기, 남자프로농구 KBL 3경기, 여자프로배구 1경기 등 총 7경기다. 남자프로배구는 KB손해보험-삼성화재(1경기)전이 뽑혔다.

K리그챌린지는 대전시티즌-부천FC(2경기)전, 안산그리너스-아산무궁화(3경기)전이 선정됐다. 남자프로농구는 전자랜드-안양KGC(4경기)전, 원주동부-KCC(5경기)전, 서울SK-오리온스(7경기)전이 뽑혔다. 여자프로배구는 KGC-현대건설(6경기)전이 선정됐다.

이번 '토트언더오버'38회차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경기가 모두 종료된 뒤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와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을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